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10일 화요일 음 12월 23일 (조금)

기상정보

호리고 비

제주에는 호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7℃, 낮 최고기온은 11-12℃로 예상된다. 아침 (06-09시)부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으니 우산을 챙기자.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 주

70%

60%

성 산

70%

60%

고 산

70%

60%

서귀포

70%

해돋이 07:23

해질 18:13

달뜨기 01:38

달지기 11:38

물때

만조 05:22

간조 10:53

15:08

22:55

☀

자외선지수

낮음

☀

산불위험지수

낮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흐림

6/13℃

모레

☀

맑음

3/14℃

월드뉴스

‘총선 압승’ 다카이치 총리 “헌법 개정안 준비”

핵 반입 금지 규정 재검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의 당론”이라며 의욕을 나타냈다.

9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민영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고 “헌법 개정안은 각 당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10석을 웃도는 316석을 얻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엄중한 안보환경을 고려해 핵무기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살상력이 있는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우호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전(수출)해도 좋다는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는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환경 정비’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당선자에 꽃 붙이는 다카이치 총리.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문화광장

양 건
건축학박사·가우건축대표

2026년 벽두의 제주 문화예술계에는 의미 있는 문화행사가 있다. 제주도립미술관과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가 공동주관해 제주현대미술관에서 공립미술관 최초로 건축가 김석윤의 초청기획전 ‘제주체(濟州體)’가 개막한 것이다. 이번 기획전은 비로소 제주에서 건축이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서 지위를 얻은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제주도민들도 제주체 전시를 통해 공립미술관에서 건축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생소한 체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공립미술관 최초의 건축가 전시 ‘제주체’를 감상하고…

데 ‘제주체란 무엇인가?’란 의문이 있다. 이는 2014년 발간된 작가의 저서 ‘제주체’에서 인용한 것으로, 작은 의미로는 완당 김정희의 ‘추사체’가 있듯이, 김석윤의 건축적 이념을 수렴하는 하나의 기질로서의 제주체다. 큰 의미로는 동시대적 제주 건축의 정체성으로 확대해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면 건축가가 나고 자란 화북 생가의 거대한 모형이 마중한다. 후배 건축가 오정현의 작품으로 지방문화재인 제주 와가와 함께해 온 건축가 김석윤의 삶을 시간층으로 분리해 수직으로 적층함으로써 이 주택과 작가의 관계성을 함축한다. 더불어 한쪽 면에는 선친이신 김광주 선생의 예술성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인트로는 김석윤의 작가성이 어린 시절의 물리적 환경과 가족에서 비롯됐음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전시 전체에 작동한다.

다음 전시실은 건축가론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다. 전이 공간에서 감상하는, 무용과 건축의 콜라보 영상이 압권이다. 제주 땅에서 생성돼 생명을 얻는 건축의 탄생을 무용으로 표현한다. 김석윤 건축의 존재론적 시원을 담아낸 영상작업이다. 주 전시는 제주에서 활동을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 시기별 대표적인 주거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철저한 모더니스트 건축가로 제주에 환도해 지역주의 건축가로 변이하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살아온 삶의 궤적을 통해 실존적 주체로서의 건축가 김석윤을 만날 수 있다.

메인 전시실에서는 김석윤의 건축론을 풀어내고 있다. 엄선한 15개의 건축 작품이 한국건축사전가회

회원의 사진과 후배 건축가 30인이 건축 요소별로 재해석해 제작한 모형으로 전시된다. 김석윤의 건축이 제주 곳곳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지역성을 담아낸 건축 어휘와 공간을 어떻게 구사하고 있는지 살피는 동안, 제주체의 의미는 한층 더 확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전시공간은 김석윤의 영상이 맞이한다. “이번 전시는 개인의 예술적 성취를 넘어서서, 평생 추구했던 제주 건축을 향한 서사이며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에 진중한 울림이 있다.

미술관을 나서며 이 근사한 전시를 위해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썼던 김지희 큐레이터 및 제주건축계 후배들의 얼굴들을 경외의 마음으로 떠올린다. 그들의 바람처럼 제주체 전시는 제주 건축이 진일보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열린마당

걱정 듣던 열혈 신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다 갈등을 담아내는 제주에서 평화를 말하다

이 은 주
제주도의회 주무관

올해로 공직생활 20년을 맞았다. 크고 작은 풍파 속에서도 여기까지 버텨온 자신에게 이제는 “잘 잡혀왔다”고 말해주고 싶다.

2006년 늦깎이로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나는 꽤 거침이 없었다. 직원회의마다 손을 들었고, 동료들과 나는 고민을 정리해 건의하곤 했다. 웅변의 말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짜이, 공무원 생활 어떻게한 햄신고…” 하는 걱정 of 시선도 따랐다.

당시의 나는 원칙만을 앞세운 ‘열혈’ 공무원이었다. 민원 현장에서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았고, 인성을 높였다가 사무실 한편에서 눈물을 흘린 날도 적지 않았다. 공직사회에 서툴렀던 초년생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결을 지켜준 선배님을 덕분이다. 갈등 앞에서 혼을 내면서도 결국은 등을 두드리주던 분들. “다 경항명크는 거주”라며 내맡겨주던 그 투박한 손들이 나를 버티게 했다.

이제 나 역시 그때의 주사님들처럼 후배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 최근 적응의 어려움으로 공직을 떠나려는 후배들을 볼 때면 마음이 무겁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낯설고 힘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누구에게나 적응의 시간은 필요하고, 그 속도는 다를 뿐이라고.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어느새 인정받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공직 20년 차에 선 나는 다짐한다. 흔들리는 후배에게 “버텨보라”는 말 대신, 함께 버틸 결을 내어주는 선배가 되겠다고. 20년을 버텨온 내 다음 시간은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시간으로 채워가려 한다.

김 정 아
제주도청 평화외교과

2026년 병오(丙午)년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병오년은 화(火)의 기운이 가장 두드러지는 해로 설명되곤 한다. 명리학에서 화는 적절히 작용하면 소통이 강화되고 이해가 깊어지지만, 과하면 서로 간의 이념과 신념 충돌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전해진다. 화의 기운이 강한 올해, 국제사회는 지정학적 갈등과 이념 양극화로 국가 간 긴장뿐 아니라 사회 내부 균열도 깊어지고 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평화와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제21회 제주포럼이 6

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올해 포럼의 대주제는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성’이다.

제주는 수(水)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섬이다. 수의 성질은 맞서기보다 담아내고, 고정시키기보다 흘려보내는 데 있다. 제주를 말해지지 않은 역사와 집단적 상처를 오랫동안 품어내며,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화합과 상생으로 치유해 온 공간이다.

화의 기운이 정점에 이르러 갈등이 두드러지는 시점, 수의 기운을 지닌 제주에서 평화 담론이 펼쳐지는 것이다. 갈등은 봉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은 갈등은 틈을 내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갈등이 표면 위로 올라왔을 때 솔직하게 마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포럼에서 도출되는 세계 평화의 메시지가 갈등의 언어로 과도하게 증폭되지 않고, 제주가 지닌 포용의 힘을 통해 차분하게 조율돼 평화의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한정(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수를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점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굴묘목

▲유라조생 2년생 4년생

▲천혜향 2년생 3년생

▲궁 천 3년생

·황금향 ·레드향 ·한라봉

그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을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

감굴신품종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리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히라베니

농장 일대만료로 특별 분양

유라조생, 레드향, 카라향

(3년생 분양 10,000원 100% 이식묘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로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강정종묘

종남농장

신품종 우량묘 포트묘

제18-서귀포-2019-20-03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국내육성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완료

다양한 년수 포트묘 보유중

등록품종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카라향, 레드향, 하굴, 유라조생, 레몬,

신품종

달코미, 우리향, 미래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터도로 530 (사무실)

주문전화

010.3696.1614